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현황과 기록학적 분석 시론*

The Status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 Archive and the Archival
Preliminary Study

정성미(Jung, Sung-mi)**

1. 머리말
2.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현황
 - 1) 자료 현황
 - 2) 서비스 현황
3.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성격과 가치
 - 1) 성격
 - 2) 가치
4. 기록학적 검토와 제안
 - 1) 수집과 분류
 - 2) 정리와 기술
5. 맺음말

* 이 논문은 2015년도 원광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원광대학교 사학과 조교수.

■ 투고일 : 2016년 9월 30일 ■ 초심사일 : 2016년 10월 4일 ■ 게재확정일 : 2016년 10월 14일

〈초록〉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전국에 걸쳐 일어난 밑으로부터의 항쟁이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 근대화의 서막을 열었으며 이 사건을 전후로 동아시아의 세력판도가 달라지는 전환점이 된 의미가 큰 사건이다. 동학혁명에 대한 인식은 1894년 당시 동학농민군은 반란을 일으킨 세력으로서 역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러나 근현대의 질곡을 거쳐 점차 변화되었다. 마침내 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기점으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연구도 활발해지면서 재조명되었다. 본고에서는 동학농민혁명사료를 중심으로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현황과 가치 및 성격을 살펴보았으며 시론적으로 기록학적 관점에서 수집과 분류, 정리와 기술에 대해 검토하였다.

주제어 : 기록의 가치, 기록물 성격, 기록관리 현황, 동학농민혁명, 동학농민혁명기록물

〈Abstracts〉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1894 was a nationwide movement from the bottom of the uprising, which opened Korean modernization. Before and after the said revolution, the map of East Asian powers changed. It was an event with very significant meaning. When the revolution occurred in 1894, the peasant revolutionaries could not escape from the yoke of the traitors who rebelled. However, as time passed, recognition of the event also changed. Since the centennial anniversary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1994, concerns and interests regarding the event have increased. Studies on this revolution have also been invigorated, thus shedding new light on the incident. By focusing on the historical sources o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this article, the current status and archive of the event is studied, its value reviewed, and its collection, classification, arrangement, and

description discussed from the perspective of archival studies.

Keywords : Archival Value, characters of archives, current status of record management, Donghak Peasant Revolution,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1. 머리말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아래로부터의 농민항쟁으로 우리나라 근대화의 서막을 연 일대 사건이었다. 아울러 이 사건을 계기로 동아시아의 국제질서가 크게 변화되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사적 의미가 큰 사건이다. 동학혁명에 대한 인식은 1894년 당시 동학농민군은 반란을 일으킨 세력으로서 역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러나 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기점으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연구도 활발해지면서 재조명되었다. 2004년에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정부차원에서 동학농민혁명과 동학농민군에 대한 명예회복이 진행되었다. 특별법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400여명의 참여자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졌다. 2010년에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설립되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명예회복사업과 기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100주년을 계기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새롭게 발굴되었다. 그동안 수집되었던 자료를 모아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이하 『사료총서』라 함)를 발행하였고 정부의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에서 이를 국역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이하 『사료총서』라 함)가 간행되었다. 최근에는 새로운 자료를 수

집·발굴하고 번역하여 『동학농민혁명신국역총서』(이하 『신국역총서』라 함)를 발간하였다. 뿐만 아니라 당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농민군 및 관계 인사들의 후손들을 찾아 관련 자료와 구술을 채록하는 등 동학농민혁명 연구자와 대중들의 관심을 위해 동학농민혁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2015년부터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에 있다.¹⁾ 그러나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의 현황을 분명하게 알 수 없다. 이는 자료의 양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주는 목록작업이 진행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 현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기록물의 정리와 분류도 시도된 바가 없었다.²⁾

따라서 본고에서는 1996년에 간행된 『사료총서』와 그 이후에 새로 발굴된 기록물,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기념관과 기념재단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목록을 근거로 하여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현황³⁾을 정리하고자 한다. 나아가 기록물의 가치와 성격을 검토하고 기록학적 관점에서 수집과 분류, 정리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문헌기록 이외의 구술자료와 사진은 제외하였으며 이는 별도의 정리가 필요하다.

-
- 1) 동학농민기념재단에서는 동학농민군 기록물 27건(문서22, 사진도판2, 도서3), 조선정부측 기록물 115건(문서22, 도서93), 민간진입기록물 16건(문서6, 도서10), 개인견문기록물 11건(도서), 일본측 기록물 2(사진1, 문서1) 총 171건에 대해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서」 참조).
 - 2)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주로 개별기록물을 대상으로 지역 연구에 초점을 맞추거나 자료 분석 등 사료 비판 관점에서 연구되었다.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 논저로는 김용섭(1958), 이이화(1989), 배항섭(1994), 신영우(1994), 박맹수(2009) 등이 있다. 기록물 정리 및 번역서는 국사편찬위원회(1959), 동학농민전쟁백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1996),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2006-2008),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2010-2014; 2015) 등이다. 메뉴스크립트 분류 정리에 관한 연구성과로는 채미하(2004), 조경구(2003) 등이 있다. 수집 과정에 대해서는 박맹수(2009)의 『사료로 보는 동학과 동학농민혁명』을 참조한다.
 - 3) 『사료총서』에 있는 기록물의 대부분은 『국역총서』와 『신국역총서』에 수록되었으며 여기에서 누락된 기록물은 동학농민혁명 Web D/B에 소개되고 있다.

2.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현황

1) 수집 기록물 현황

1996년 간행된 『사료총서』 30권에는 167건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역사문제연구소, 동학농민전쟁백주년기념사업회 199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DB). 그러나 여기에 수록된 자료가 대부분 한문이나 일본어로 된 원문이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만이 이용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더구나 초서로 된 일부자료는 전문가들조차도 해독이 어려워 이중 122건을 한글로 번역하여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국역총서』 13권을 발간하였다.⁴⁾ 1996년 이후에 수집 발굴되었거나 번역이 늦어 미처 『국역총서』에 실지 못한 자료들 9건은 『신국역총서』라는 이름으로 2016년에 5권으로 추가 간행하였다.

필자는 『사료총서』와 새로 발굴되어 학계에 발표된 자료, 기념재단에서 수집한 자료와 기념관이 소장한 자료목록을 종합하여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목록을 작성한 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은 총 271건으로 집계되었다.⁵⁾ 271건의 기록물에 대하여 생산처, 관련지역, 기록물 형태, 소장처, 기록 내용의 대상 시기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록물의 생산처는 기록물의 성격별 구분으로 조선정부 측 자료, 유생 측 자료, 동학농민군 측 자료, 교단 측 자료, 일본정부 측 자료, 천주교 및 기타 등으로 분류하였다.⁶⁾

4) 2007년부터 순차적으로 발간되어, 2015년에 완간되었다.

5) 건수는 철을 의미하는 것으로 약 200여 건의 첩보가 실린 「선봉진정보첩」도 1건이며 도서 1권도 1건, 1장의 문서도 1건으로 처리되었다. 이본이 있는 동경대전 5건과 조병갑 간찰 6건은 각각 1건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도서 속에도 여러 건의 문서가 1권으로 묶여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정확한 개별 문서 건수의 산출을 위해서는 각 도서에 포함된 문서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일일이 확인하면서 중복된 문서를 제외시켜야 하는 방대한 작업이어서 정확한 건수는 산출하지 못하였다. (<부록> 참조)

〈표 1〉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생산처별 건수

생산처	조선정부	유생	농민군	교단	일본정부 및 기타	천주교	기타	합계
건수	118	76	20	22	31	1	3	271

생산처별 건수는 조선정부 118건, 유생 78건, 동학교단 22건, 일본 31건, 농민군 207건이었다. 이에서 알 수 있듯이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은 대부분 조선정부와 일본 측 자료 그리고 민간인인 유생 측의 자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나타난다. 농민군의 입장에서 기술된 기록물은 20건에 불과하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정부와 유생, 그리고 일본군 측의 기록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 인식에 있어서 오랜 기간 동안 농민군의 입장이 반영되지 못했던 사실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조선정부 측의 기록물은 주로 진압 당시 생산된 자료로 보고서의 성격을 띤 것이 대부분으로 1차 진압과 2차 진압자료로 분류하였다. 이 가운데 『취어』의 경우 1893년 충청도 보은집회를 탐지한 내용과 동학농민혁명의 발발과 전개상황, 무장포고문, 전라감영의 함락 전말도 기재되어 있다. 1차 진압자료인 『양호초토등록』은 양호초토사 홍계훈이 전주성을 수복한 직후인 5월 16일까지의 일을 일기체로 수록한 자료이다. 2차 진압자료로 대표되는 『순무선봉진등록』 등은 양호선봉장 이규태가 순무영에 보고한 문서와 답변, 친군경리청부영관 성하영과 자위영부영관 이두황이 선봉장에게 보고한 문서와 답변에 관한 내용 등 다양한 공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외 정부 측 전라도지역 토벌자료인 『동비토록』은 전라감사, 충청

6) 조선정부군 진압자료(관), 재판자료(관), 유생 민보군자료(유생-민) 유생 견문자료(유생-견), 동학농민군 자료(농-유생포함), 동학 및 천도교 교단 자료(교단), 일본측은 일본정부진압자료 및 기타다.

7) 동학접주들의 임명장은 교단으로 처리하였다.

감사, 양호초토사, 각 군현의 수령 등이 정부에 올린 장계를 비롯해 각종 보고문이 가장 많고 이 밖에 각 개항장 감리의 보고, 청의 원세개가 보낸 외교문서, 청일 양국 병력의 상륙 상황 등도 실려 있다. 또한 관문서 외에도 동학농민군 진압을 촉구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양반유생의 상소도 포함되어 있다.

유생 측 자료로 직접 민보군에 참여하여 당시 동학농민군의 경향을 기술한 것으로 대표적인 자료는 문석봉의 『의산유고』, 정석진의 『난파유고』, 김석중의 『토비대략』, 반재원의 『갑오척사록』 등을 들 수 있다. 『갑오척사록』은 경상도 예천에서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만든 예천군 집강소 일기로 동학농민군의 '불법활동'을 나열하여 민보군 설치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한편 양반과 향리, 지주와 부농을 위한 자위세력임을 밝히고 있다.⁸⁾ 지방의 유력 유생으로서 소모사의 직책을 맡고 농민군 처벌에 앞장서는 유생들의 기록으로는 정의묵의 『소모실기』, 조시영의 『소모사실』 등이 있는데 각급기관과 주고받은 공문서를 통해 소모영의 편제와 관련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반농민군의 입장에서 동학농민혁명을 바라본 유생들의 견문록으로는 이중하의 『남정일기』와 작자 미상의 『갑오실기』, 이용묵의 『백석서독』, 이복영의 『남유수록』 등이다. 농민군의 동향에서 부터 집강소 상황, 청병의 진주사실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사실들을 담고 있다.

농민군 측 자료로는 농민군지도자의 근황을 알 수 있는 『김낙철역사』와 한달문의 『옥중서신』, 예천지역 포교소 접주가 쓴 『학초전』 등이 있으며 동학농민혁명이 진압된 이후 농민군의 행적을 알 수 있는 자료로 『노정약기』가 주목된다. 특히 『학초전』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양

8) 동학농민군이 읍내에 거주하던 지주 4인을 보내라고 요구하자 “4명은 部内の 사람 들이며 또 모두 재산을 넉넉히 가지고 있다. 그래서 4부 내의 수만 명 백성들의 목숨이 여기에 의지하여 유지되고 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없다면 당초 포악한 자들을 막아서 어려움을 구제하려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간다.” 라는 기록에서 알 수 있다. 『갑오척사록』, 초 8월 입자·초9일 계속조. 『국역총서』 3권 pp. 272-274를 참조

반신분으로 예천지역 접주로 활약했던 박학래의 자서전으로 경상도북서부지역 동학농민군 측의 동향에 대해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 예천지역의 민보군 기록인 『갑오척사록』과 대비된다.

일본정부 측 토벌자료로 『미나미고시로문서』⁹⁾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동학농민군 진압 전담부대인 일본군 후비보병(後備步兵) 제19대대 대대장이었던 미나미고시로가 동학농민군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보고받은 문서들로, 이를 통해 일본군이 어떻게 동학농민군을 진압했는지 그 실상을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다. 미나미고시로문서 안에 있는 「이력서: 동학당정토경력서」는 제19대대는 주한일본공사관의 지시를 받는 것은 물론, 일본정부(외무성)와 군부(대본영)의 지시에 의한 농민군 진압이라는 점에서 일본 정부와 군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규명할 수 있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농민군을 지원하고 이들을 방조한 관리에 대한 사찰 및 정보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여산부사 유제관을 비롯하여 농민군을 직간접적으로 도운 전·현직관리 10여 명의 죄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사실에서 살펴볼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이 끝난 후 이들을 처벌하는 과정 중에 생산된 재판자료는 당시 동학농민혁명의 과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로 특히 『전봉준공초』는 동학농민혁명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1차 사료로서의 가치는 매우 크다. 이 외 『중범공초』, 『이병휘공초』, 『동학관련판결선고서』 등이 있다. 『중범공초』의 경우는 다른 판결문과는 달리 동학농민혁명이 끝난 이후 관련자들의 재 도모에 관한 심문기록이다. 1895년 이후 농민군의 동향을 알 수 있다.

동학교단측 자료로 『동학도종역사』, 『시천교종역사』, 『본교역사』 등이 있으며 이 밖에 최제우 관련 자료와 동학·천도교사 자료 등이 있다.

9) 미나미 고시로 문서의 수집 경위와 특징에 대해서는 『신국역총서』 5권(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5, 11-36)을 참조.

특히 청주접주로서 교조신원운동에 참여했던 권병덕의 『갑오동학란』에는 동학농민혁명의 경위와 관군과 주고받은 문서가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어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황해도의 농민군 동태를 이해할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시각은 생산주체별로 정부 측과 농민군의 입장은 분명하게 다르다.

또한 유생들의 시각은 성리학적 지배질서와 충효논리에 근거하여 정부 측의 입장과 동일하지만 대외적인 입장은 농민군 측과 입장을 같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생의 입장에서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못마땅하게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지만 모든 일기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은 지나친 학살과 보복을 우려하는 모습으로 관군과 민보군, 농민군이 마을을 방화하고 목숨을 가벼이 여기는 행위를 개탄하고 있다. 특히 ‘패륜 행위’를 한 농민군 가담자의 처단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저항하지 못하는 무력한 농민군 가담자를 대거 학살하고 그들의 집을 불태우는 등의 행위는 비판의 눈으로 보고 있으며, 6월 말 이후 관군이 말아야 할 농민군의 처벌을 외국군대에 의해 처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견해를 보이기도 한다(신영우 1994, 298-300).

〈표 2〉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기록 형태별 분류

건수/형태	서지		형태	
271	인쇄본	46	도서	206
	필사본	222	문서	51
	금석문	2	신문	7
			잡지	6

다음으로 기록물의 형태는 도서 206건, 문서 51건, 신문 7건, 잡지 6건이다. 도서는 필사본이 222건, 인쇄본이 46건, 금석문이 2건이다. 그러나 도서 속에는 정부와 지방 군·현 사이에 주고받은 여러 건의 문서가 1권의 도서로 묶여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 도서의 문서 건수는

일일이 정리하지 못하였다.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특징은 정부 측의 경우 이문, 감결, 전령, 첩보, 서목, 원정, 간찰, 상소문, 명록, 장계, 통문, 판결서 등의 문서를 형태별로 묶어 1권의 도서로 보관하였으며 지역 유생의 자료는 대부분 일기 형식의 문헌으로 농민군 토벌에 참가했던 유생들의 제문, 행장 등도 함께 신고 있다. 이밖에 묘지명, 비문 등의 금석문과 담화체 형식의 문헌도 보인다.

시기별로는 1892~1893년의 교조신원운동 단계와 1894년 1월의 고부농민봉기로부터 9월 초순까지의 1차 봉기 단계와 9월 이후 재봉기 단계로 구분해 보면 재봉기 이후의 자료가 130여 건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1차 봉기 단계, 교조신원운동 단계 순이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9월 재봉기 단계에 집중되어 있는 점은 1차 봉기가 전라도에 국한된 사건이었던데 비해 9월 재봉기는 전국적인 반일운동이었고 정부군과 일본군이 연합하여 이를 진압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많은 기록물을 남긴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1894년과 1895년 당시에 생산된 이들 기록물은 당시의 생생한 현장을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1차 사료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1894년 이후에 생산되었지만 당시 혁명에 참여하고 경험한 사실들에 대한 농민군 측 기록물과 유생들의 민보군활동이나 견문록 역시 1차적 사료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직접 체험한 사실인지, 전해들은 것들을 구체적 이해와 판단 없이 기록했는지는 엄격한 사료 비판을 거쳐야 할 것이다.

〈표 3〉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기록 대상 지역별 현황

지역	전라	충청	경상	전라, 충청, 경상	경기	강원	평안	황해	전국	기타	합계
건수	81	35	21	8	7	2	2	6	18	91	271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대상 지역별 통계는 도별로 중복된 경우가 많아서 명확한 분류는 어렵다. 그러나 기록물의 대상지역에 대한 대체적인 집중도는 확인할 수 있다. 위 표에서 보듯이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순으로 전라도 지역의 기록물이 가장 많다. 이 순위는 동학농민혁명에 과정에 있어서 전라도가 중심이었다는 사실과 함께 정부군이나 일본군과의 접전 회수, 농민군의 동원 규모, 관련 군현 수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전라도 지역은 우도인 고부, 태인, 남원, 운봉, 부안, 고창, 흥덕, 좌도의 나주 강진, 해남, 장성, 장흥, 구례, 광양, 완도 등지와 관련한 기록물로 민보군 활동과 견문 기록, 그리고 효유문을 비롯하여 각 군현의 농민군에게 빼앗긴 물품 내역 및 진압군 동원에 관한 자료들이다.

충청도 지역은 홍성, 부여, 공주, 아산, 서천, 영춘, 금산 등지의 민보군 행적과 피난 중의 견문기록, 그리고 청풍의 농민군 지도자 성두환에 대한 자료들이다. 경상도 지역의 기록물은 전라도나 충청도에 비해 수집물은 적은 편이다. 상주, 청산, 보은 등지의 기록물이 수집되었으며 계속하여 수집 발굴 중에 있다. 최근의 자료로는 『학초전』 등이 있다.

이 외 황해도 역시 봉기한 고을의 숫자와 농민동원의 규모가 커 강원도나 평안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록물이 많았다.

〈표 4〉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소장처별 현황

소장처	개인	규장각	기념관	천도교 중앙총부	국사편찬위원회	국가 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고려대	연세대	기타	미상	합계
건수	38	61	55	11	6	5	8	35	4	8	40	271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소장처는 규장각이 61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45건을 소장한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다. 그리고 고려대 도서관과 개인소장이 각각 35건과 34건 순이다. 기타는 일본외무성, 장서각

각 3건, 독립기념관, 백범기념관, 교회사연구소, 선교장 등이 각각 1건씩 차지하고 있다.

규장각이 많은 것은 정부 측 진압자료와 중앙정부와 군현 간에 주고 받은 문서들이 대부분 규장각에 소장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외에 대학도서관은 유생들의 문집, 혹은 개별문서가 주로 수집되었으며 개인소장 자료는 주로 후손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서비스 현황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에 대한 서비스 구축은 동학농민혁명종합정보시스템(이하 동학농민혁명 D/B라 칭함)에서 이루어지고 있다.¹⁰⁾ 동학농민혁명 D/B에는 자료마당, 연구논저, 증언록, 연표, 일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자료마당은 수집된 기록물을, 증언록은 연구자들이 동학농민혁명참여자 후손들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의 상황을 정리한 글을 서비스하고 있다.

자료마당에는 『사료총서』 30권에 대하여 일반자료 24건, 지역사례 73건, 진압기록 30건, 일본자료 25건, 동학관련자료 16건 등으로 구분하여 총 168건을 대상 시기, 서지, 해제, 원문, 국역, 이미지로 구분하여 제공 가능 여부에 따라 서비스하고 있다.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면 D/B기록물 중 국내자료 18건은 국역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다. 『오하기문』, 『동학사(초고본)』, 『통유동학도문』, 『대한계년사』, 『동학문서』, 『매천집』, 『고성부총쇄록』, 『일사』, 『문장준역사』, 『창산후인조석현역사』, 『남정록』, 『갑오군공록』, 『최선생문집도원기서』, 『대선생문집』, 『대선생사적』, 『갑오동학난』, 『천도교서』, 『천도교임실교사』 등으로 아직 국역작업이 끝나지 않았거나 사정상 탑재

10) 이외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D/B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미지를 제공하지 않은 건수 역시 17건이다. 대체적으로 국역 서비스가 미비할 경우 이미지만이라도 탑재된 경우가 많은데 『통유동학도문』, 『대한계년사』 등은 이미지조차 제공되고 있지 않은 형편이다. 이와는 달리 『봉남일기』, 『박봉양경력서』, 『홍성금석문』, 『모충사전망장졸씨명록』, 『갑오해영비요전말』, 『선유방문병동도상서소지등서』, 『순무사각진전령』, 『선봉진전령각진』, 『선봉진일기』, 『선봉진정보첩』, 『일본사관함등』, 『이규태왕복서명묘지명』, 『곡성군수보장』, 『장계』, 『계초존안』 등은 국역은 소개되고 있지만 이미지는 제공되고 있지 않다. 일본자료인 일본 외무성자료와 신문자료 기타 자료 25건 중 한 건도 국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이미지만 볼 수 있다.¹¹⁾ 동학관련 자료 중 판본별로 5건의 동경대전과 기타 교단 자료 5건은 역시 이미지만 제공 중에 있다.

이 외 동학농민군 후손들과의 인터뷰를 정리한 자료에 대한 도별 현황은 전라도 62건, 충청도 16건, 경상도 15건, 강원도 2건, 황해도와 함경도 각 1건 등 총 97건이다. 전라도의 경우 우도는 고창, 정읍, 부안, 금구, 영광, 김제, 무주, 남원 등지이며 좌도는 나주, 장흥, 강진, 함평, 장성, 무안 등지이다. 충청도는 예산, 홍성, 서산, 태인, 서천, 청주, 목천 등지이며 경상도는 상주, 예천, 김산, 남해, 산청 등지이다. 전라도 지역 건수가 많은 것은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접전지였음을 말해주며 그 외의 지역도 구술을 통해 당시의 여러 상황들을 가늠해 볼 수 있다.

11) 2016년 9월 현재, 동학농민혁명종합정보시스템 서비스 현황. 『국역총서』 5~12권은 자료소개란에서 pdf로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3.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성격과 가치

1) 성격

1894년 유학자 매천 황현¹²⁾은 동학농민혁명을 ‘비란(匪亂)’, ‘역모(逆謀)’라 하였고 농민군에 대해서는 ‘동비(東匪)’, ‘적(賊)’, ‘사난작적자(思亂作賊者)’라고 칭하였다. 이것은 당시 유학자 대부분의 시각이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120여 년이 흐른 현재, 동학농민혁명이 가지는 역사성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명칭도 바뀌었다. 민간인의 문집 및 일기나 동학농민혁명을 목격하거나 전해들은 개인의 전문기록도 매천과 같은 당시 지식인의 동학에 대한 인식과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¹³⁾ 이들 역시 반농민군의 편에 있었고 이는 당시 일반적인 시각이었다.

당시 일부 유교지식인들은 민보군(반농민군)을 조직하여 농민군 진압에 나서는 등 적극적 대응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은 농민군의 봉기를 방조 혹은 관망하거나, 비난하는 등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은 시기별, 군현별, 학파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전라도의 경우 경상도와 충청도와는 달리 유학지식인 일부는 농민군에 적극 가담한 사례가 있으며 최근에는 경상도 예천 지역의 양반 박학래도 동학접주로 농민군에 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⁴⁾ 한편으로는

12) 황현은 『오하기문』에서 유생의 한 사람으로서 동학농민군의 봉기 자체를 옳지 않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 1864~1907년까지 조선말기의 여러 일들을 날자 별로 기록하였는데 갑오년 기사에서 당시의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오하기문은 『사료총서』 1권에 수록되었지만 『국역총서』에 수록되지는 않았고 D/B에서도 국역서비스는 하지 않고 있다.

13) 시기적 동학농민의 인식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진영(1993), 전라도 유생들의 인식에 관한 것은 박맹수(2009)를 참조.

14) 태인 무성성원의 장의와 색깔을 지낸 김영원(1853~1919)의 사례, 경상도 박학래의 사례.

한 문중에서 한 쪽은 농민군으로 다른 한 쪽은 민보군으로 참여한 사례도 보인다.¹⁵⁾ 이처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은 다양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보수세력의 유생, 혁신세력의 농민군이라는 이분법적 논리에서 벗어나 조선후기 위기적 상황에 인식과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각각의 가치관을 여실히 보여주는 자료이다.

그러나 유생 측이 남긴 일기자료는 민보군에 직접 참여하고 사실관계를 기록한 민보군의 공식적인 일기와 지방 유생들이 돌아가는 시국 상황을 전해 듣고 부분적으로 기록한 생활일기로 각각 한계점을 보이기도 한다. 민보군의 경우 유생 개인의 군공 인정과 명예를 위해, 활동자금에 대한 상세내역을 증명할 목적으로 남긴 경우도 있다. 한편으로는 소속 관청에서 처리 근거자료로 수발대장을 만들어 공문서철을 만들어 두었다. 이들 문서와 문집들은 간결한 보고의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당시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평면적 기록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는 자료는 민보군 지도자의 개인일기이다. 구체적인 전투상황과 농민군의 행동 등 공식문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안 들을 담고 있어 당시의 사건들을 본질 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통로역할을 하고 있다. 유생들의 생활일기는 직접 경험한 사례를 기록한 것 보다 전해들은 내용을 쓴 것이 많기 때문에 과장되거나 오류가 있는 부분이 많다.¹⁶⁾

상대적으로 농민군 측 기록물은 정부와 민보군의 진압과정에서 모두 불태워졌고 남은 것도 후환이 두려워 인멸시켰으며 민보군 지도자의

15) 전라도 태인의 도강김씨 문중에서 김개남(김기남)은 농민군 지도자로, 김기술은 반농민군 지도자로 나선 사례.

16) 『대한계년사』의 “전라감사 李道宰가 전봉준을 사로잡았다”는 오류로 보이며 『영상 일기』의 “밀양집회 수만명”은 과장된 기록이며 『경란록』의 “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했을 때, ‘스스로 국호를 세우고 스스로 왕호를 칭했다’는 사실은 다른 기록에 보이지 않는 특이한 부분이다. 기타 민보군의 기록물에 관한 사례는 신영우(1994)의 ‘동학농민전쟁’ 연구와 일기자료 연구를 참조.

일기에서도 농민군에 관한 내용을 소략하게 기록하거나 아예 제외시킴으로써 많은 한계를 가진다.

동학은 창도 당시부터 재야의 보수유림세력과 지배층으로부터 흑심한 탄압 아래에서 교단을 수호하고 포교에 종사하였다. 따라서 관련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기록을 보존하는 일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기록된 자료를 공간(公刊)하여 교인들 사이에 공개하는 일도 대단히 어려웠다. 지금 남아있는 동학 교단 측 자료의 상당수는 비교적 후대까지 살아남은 교인들의 기억에 의존하여 기록된 것이 상당하여 그 사실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흑심한 탄압 속에서 동학 교인들이 자신들의 솔직한 생각이나 체험·행동을 자유로이 기록할 수 없었다는 점이 사료비판의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관변자료·일본측자료·주한외국공사관 및 외국인 측 자료 등과 상호 비교 및 검토를 통해 객관적 사실에 더욱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2) 가치

첫째, 저항과 투쟁을 넘어선 인간존중과 평등추구의 기록유산이다. 동학농민혁명은 탐관오리의 학정에서 백성들을 구하자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위로부터의 잘못된 정치를 제거하여 나라를 보존하고 백성을 편안히 하자는 보국안민의 기치로써 이를 위한 실천적 움직임이 동학이었다. 엄연한 신분적 질서가 자리 잡고 있는 조선사회에서 동학교도들은 신분의 귀천과 나이에 상관없이 서로 대하는 예가 공손하였고 평등하였으며(황현, 129) 남보다 뒤처지는 사람이 있다 하여도 정성껏 섬겼다(황현, 232). 이런 까닭으로 하루에 몇 십 명씩 입도를 하였고 서산군의 경우 몇 달 안에 동학 세력이 크게 성장하였다(박맹수 2014, 19-20). 실제 동학농민혁명 당시 관군은 행군을 하면 연도에서 닦치는 대로 노략질을 해 백성들의 원성을 샀다. 그러나 동학농민군은 백

성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도록 하였고 한편으로는 쓰러진 보리를 일으켜 세우며 행군하기도 하였다(황현, 79-80). 농민의 편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화합하는 실천적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관과의 타협으로 맺은 집강소 설치의 일방적인 상명하달의 수직적 봉건정치가 아니었고 관민의 협력아래 타개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농민이 직접 참여하는 등 근대 민주정치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국내를 넘어선 동아시아적 의미를 지닌 기록유산이다.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는 봉건적 모순을 인간존중과 화합을 통해 벗어나 근대로의 지향을 실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에 저항하며 국가적인 자주성을 추구하였다. 일본은 동학농민혁명 진압을 핑계로 한반도에서 청과의 전쟁을 도발하고 결국 조선에 대한 정치 군사적인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특히 ‘동학당진압대’라 칭한 독립후비보병 제 19대대를 파견하고 이들에게 농민군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이는 일본군이 해외침략을 위해 행해진 최초의 제노사이드로 당시 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에 의해 학살된 농민군 사상자는 3~4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¹⁷⁾ 이는 한반도내의 문제가 아니라 청·일 양국이 한반도를 정점으로 세력을 넓히려는 계기가 된 사건이자 이 사건을 전후로 동아시아의 세력판도가 달라지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역사적 의미가 큰 기록유산이다.

셋째, 사실성을 지닌 다양한 출처의 기록물이다. 동학기록물은 다양한 출처를 지닌 기록물이다. 생산 시기는 동학이 창도되는 1860년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며 그 주체는 동학교단, 관변, 재야유림, 일본, 주한 외국공사관 및 외국인, 기타 등이다. 주체가 이렇게 다양한 것은 동학

17) 농민군희생자에 관한 연구는 일본의 이노우에 가쓰오, 조정달, 한국의 강효숙, 신영우 등이다. 이들의 연구를 종합하면 동학농민혁명당시 일본군에 희생당한 농민군 사망자는 최소 3~5만 명이며 부상자를 포함하면 3~4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농민혁명에 대한 입장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동학농민군과 동학교단 측 자료는 동학농민혁명의 당위성과 동학의 교리와 포교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반농민군의 입장에서는 관변과 재야 유림, 그리고 일본 측 자료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재지 기반을 가진 유생들은 자신이 거주하던 지역에서 포교되던 동학이나 농민군의 움직임을 지근거리에서 보고 듣거나 또는 체험함으로써 관련 사실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곧 동학농민군의 피신장소, 진압군의 진압현장, 진압에 참여한 민간인의 서재, 체포 된 후의 심문 등 급격하게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생산된 것들이다.

이처럼 동학자료들은 다양한 주체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 나름의 특수성도 엿보인다. 그것은 반농민군의 입장에 선 유생들의 기록으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이들은 농민군을 적도 혹은 비적 등으로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이는 유학을 숭상하는 지식인이 가지는 일반적인 태도로서 그 속에는 동학농민군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곧 사실성에 기초하여 서술함으로써 농민군의 당시 행동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

넷째, 전국성을 띤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이다. 동학농민혁명은 한반도 전역이 무대가 되었기 때문에 일부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에 걸친 기록물이다. 규모의 차이가 있으나 삼남을 중심으로 동학의 포교 지역과 농민봉기 규모가 큰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었다. 또한 근거리에서 체험한 목격자뿐만 아니라 접전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전해들은 관련사실을 기록하는 등 전국성을 띠고 있다. 이 기록들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격변의 시기를 거치면서 인멸과 훼손의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존되어 왔다.

기록물은 농민군 진압에 참여한 관리들이나 군인들이 진압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공문서와 보고서로 사건 당시에 직접 작성된 경우가 많으며 동학농민군, 동학농민군 진압에 참여한 민간인, 그리고 동학농민혁

명을 직접 보고 들은 지식인들은 일기나 회고록 등이다. 그 형태는 임명장, 명록, 전령, 상서, 보고서, 회고록, 재판기록, 일기 등으로 대개 낱장의 문서와 그것들을 묶은 철, 그리고 저작물인 도서 등이다.

다섯째, 진본성·희귀성·완전성을 지닌 기록물이다. 법적 차원에서 공적인 권위를 가진 개인이나 조직이 과거에 생산되었거나 현재 생산 중인 어떤 문서가 확실시 되는 기록을 진본으로 추정한다. 문서학(diplomatic) 차원에서는 생산 및 유지 과정의 적격성, 즉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개인의 서명이 기록에 첨부되어 있는지, 또 기록에 표시된 시간과 장소에서 해당 기록이 생산되었는지 등이 진본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역사적 기록물의 진본성은 기록이 가리키는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또는 기록이 담고 있는 정보가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진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은 동학농민군, 조선 정부의 관료와 진압군, 진압에 참여한 민간인, 그리고 당시 상황을 직접 보고 들은 기록물로서 진본성이 인정된다. 조선정부의 주도로 공적인 과정을 거쳐 생산되었다는 점에서 진정성 있는 기록물이다. 동학농민혁명 기록물들은 낱장으로 된 문서와 도서 등 다양한 형태이며 대부분 원본 형태이다. 이러한 기록물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국가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보존되었다. 개인 저작물일 경우 가계를 이어 전승되었고 조선정부 측의 기록물들은 현재 공적기관인 서울대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등에서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있으며 기타 대학 도서관에서 수집, 소장, 관리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은 1894~1895년에 한국에서 전개된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세계 유일의 기록으로 세계 여러 곳에서 농민항쟁이 일어났지만 일정한 시간과 장소¹⁸⁾에 집중적으로 기록이 남아 있다는 점, 동학

18) 시간적으로는 1894~1895년에 집중적으로 생산되었고 공간적으로는 조선(전라, 충청, 경상, 황해도 등지)이라는 지역이다.

농민군·정부·관료·진압군·민간지식인 등 여러 주체가 각각의 관점에서 인식한 기록으로 하나의 사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라는 점에서 희귀성이 있다. 특히 동학농민군이 직접 남긴 기록이 다수 있었을 것이나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자의 혹은 타의로 대부분 인멸되고 소수의 기록만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도 희귀성을 가진다.

또한 기록이 생산되었을 때 필요 정보가 모두가 포함되었음을 보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기록관리의 측면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은 완전성을 지닌 기록물이다. 1894~5년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에 조선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인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이 사건의 주체 계층이 각각의 관점에서 동학농민혁명을 설명하고 해석한 기록물이라는 점은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을 통해 당시의 입장과 상황에 대해 객관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완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은 망실·훼손·손상·변조 등에 의하여 기록이 변경되지 않고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무결성을 지닌 기록물이다.

4. 기록학적 검토와 제안

1) 수집과 분류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수집은 현재 『사료총서』를 기준으로 국역된 것을 『국역총서』 13권과 『신국역총서』 5권으로 발간하였고 이를 Web D/B로 분야별로 서비스하고 있다.

그러나 유생자료 가운데 견문록이나 회상록의 경우 분량이 상당히 많다. 따라서 온전하게 신지 못하고 1894년 해당 부분만 잘라서 소개하고 있다. 이용자의 입장에서 지역사례를 보여주는 자료는 갑오년 이전

과 이후의 사회상을 알려주는 내용과 함께 실어야 향촌사회의 변화모습 속에서 동학농민혁명이 가지는 의미와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때문에 지역사레나 향촌사회사 연구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는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따로 원본을 구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분량의 한계로 인해 일부분만을 사료의 대상으로 국역, 이미지를 서비스하고 있는 자료는 문집 전체에 대한 서비스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자료는 지역별 활동가와 동학교단을 중심으로 수집·발굴된 것이지만 아직도 수집되지 않은 것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19세기 후반기를 살았던 유교지식인의 문집은 대개 판본으로 간행되지 못하고 하나 밖에 없는 필사 초고본으로 남아있어 후손들의 집안에 소장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또 회상 형식으로 일부분만 기록한 것들도 있을 것으로 기록물의 수집에 보다 세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규장각, 장서각, 대학박물관, 도서관 등에 소재한 동학관련 고문서 등도 동학농민혁명을 다양한 시각에서 이해하는 귀중한 자료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목록 정리도 시급하다.

국외 자료는 현재 수집된 것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 수집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¹⁹⁾ 특히 동학농민혁명과 깊숙하게 관련되어 있는 일본의 경우 기록물에 대한 수집 정리는 더욱 시급하다. 일본 중앙정부의 외무성 산하 외교사료관, 방위성 산하 방위연구소도서관, 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 그리고 일본 각지의 현립도서관이나 사료관, 공문서관, 사립사료관 등에 산재하고 있다. 현재 방위연구소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관련 사료는 상당 부분이 조사 수집되었지만 기타 소장처의 관련 사료는 조사수집이 미진한 상태이다. 따라서 학술기관이나 연구소 중심의 보다 체계적인 수집방안이 절실하다. 넓게는 북한, 중국, 미

19) 전술한 미나미고로시의 문서의 경우 미나미고로시의 직계후손이 소장하고 있는 것을 10여 년에 걸친 한·일 연구자의 노력으로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그가 조선에서 가져온 동학관련 문서는 35건에 달한다(박맹수 2015).

국, 러시아 등의 교류를 통해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한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축도 필요하다. 덧붙여 기록물의 개념을 넓은 범위에서 볼 때 문헌자료 중심에 한정된 점도 재고해 봐야 할 것이다.²⁰⁾

기록물을 분류하는 것은 기록물을 조직화하고 내적인 질서를 부여하여 기록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표현하여 계층화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은 D/B에는 일반자료에는 개인과 정부, 지역사례는 각 도별 자료, 진압자료에는 1차 진압과 2차 진압, 동학관련 자료는 경전과 교단자료로 분류하고 있다.²¹⁾ 이는 생산처, 주제, 시기, 성격별이 혼재되어있다. 예를 들어 일반자료라는 대분류 속에 개인자료와 정부자료를 중분류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괄적으로 형태는 도서, 시대는 근대, 주제는 사회운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곧 개인자료란 단체가 아닌 개인이어서인지, 정부자료는 민간이 아닌 정부이어서인지 개념이 모호하다. 즉 개인의 상대 개념은 단체가 되어야 하고 정부의 상대 개념은 민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명확한 구분과 그에 따른 용어 선택이 필요하다. 진압자료는 정부의 진압인지, 개인 혹은 민간의 진압인지 모호하다. 여기에서는 정부는 진압이며 민보군은 토벌인지, 중앙지역은 진압이며 지역은 토벌인지, 용어의 선택도 불분명하며 기록물의 생산주체 역시 정부인지 개인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지역사례 기록물도 민보군의 입장인지 동학농민군의 입장인지 성격 규명이 필요하다.²²⁾ 지

20) 기록물은 어떤 정보를 갈무리하여 특정 신호로 바꾼 후 어떤 매체에 남겨진 것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입증 가능한 가치를 지난 분야에서 영구적이거나 장기간 보존된 기록물을 포함한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생산 수집된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총칭한다.

21) 『국역총서』에서는 진압자료는 1차와 2차, 각 지역자료, 재판자료, 동학교단자료 등으로 생산처와 주제별로, 지역사례는 민보군 입장과 농민군 입장이 혼용되어 분류하고 있다. 국역총서를 기준으로 D/B화하여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에 본장에서는 DB분류만을 대상으로 서술하였다.

22) 전라도 지역사료의 경우 김낙철역사와 김낙봉이력, 한달문 옥중서신 등은 동학농민군측 자료이며 난파유고, 연파집, 답원문록 등은 민보군입장의 토벌자료이다. 또한 영상일기는 견문록이며 석남역사는 회고록이다.

역사료의 경우 대분류는 지역사례, 중분류는 각 도, 일괄적으로 형태는 도서, 시대는 근대, 주제는 사회운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수집기록물이라는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특수성이라는 점에서 볼 때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자료라는 특징을 가진 기록물로서 주제별 접근과 용어 정리 등 일정한 규칙은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전라도지역사료인 『김낙철역사』와 정부측 자료인 『취어』 그리고 전라도지역사례인 『연파집』, 동학교단 측 자료인 『종리원사부동학사』를 다음과 같이 계층적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시도해 보았다.

예)

김낙철역사 : 개인(대분류) - 동학농민군(중분류) - 전라도(소분류)

취어 : 단체(대분류) - 조선정부(중분류) - 충청도 보은(소분류)

연파집 : 개인(대분류) - 민보군(중분류) - 전남 강진(소분류)

종리원사부동학사 : 단체(대분류) - 동학교단(중분류) - 전북 남원(소분류)

기타 대상시기와 생산시기, 생산자와 기록주체, 형태, 서지 등 상세 분류를 통해 기술의 계층화와 범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정리 및 기술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기록학적 방법론의 정리 기술²³⁾을 적용하면 우선 공통의 출처를 지닌 기록사료군의 전체인 그룹계층을 선정하여

23) 기록학에서 정리란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관리하고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된다. 구체적으로는 '공통된 성격과 공통된 파일구조를 갖는, 같은 원천으로부터 나온 기록물들을 확인하거나 한데 모으고, 기록물끼리의 관련성, 기록물과 그 기록물 생산자와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조경구 2002, 890).

기술하며 계층 중에서 내용조직 단위의 사료군을 서브계층 사료군으로 설정한 후 그룹을 기술하고 외형적 요소와 내용요소의 시리즈계층을 설정하여 기술한 후 아이템계층을 설정하여 기술해야 한다. 곧 ‘그룹기술-서브그룹기술-시리즈기술-아이템기술’ 순이다(채미하 2004, 76~82).

이를 조선정부 측 이규태를 대상으로 적용하면 ‘조선정부-(기록물군)→이규태 관련 자료-(하위군)→시기별, 지역별, 형태별; 문헌(선봉진일기, 순무사정보첩, 일본사관함등), 문서(묘지명, 서신, 첩보, 전령, 감결, 관문, 소지에 대한 제사, 통문 등)-(시리즈 폴더 및 아이템)’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규태 관련 기록물에 대한 집합적 기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들어있게 될 것이다.

① 기록물에 대한 집합적 기술 : 이규태에 대한 소개. 기록물 전체에 대한 윤곽

이규태는 1841년에 태어나서 1895년 6월 23일 사망하였다. 1862년 무과에 합격하였으며 1878년에 청주영장, 1894년 장위영령관(壯衛營領官)이 되었으며 이때 양호도순무영(兩湖都巡撫營) 별군관(別軍官)에 임명되었다. 당시 동학군에 대한 정부군의 선봉장으로서 통위영(統衛營)의 병졸을 이끌고 청주·공주지역에 출동하였다. 직접 공주 및 목천세성전투(木川細城戰鬪)에 참가하여 동학군의 동태를 보고 하였으며 전공도 세웠다. 양호순무영 출진장졸 가운데 좌선봉인 통위영 영관 이규태가 지휘한 군졸의 수는 402명이다. 당시 양호도순무사 신정희와 도순무영 선봉장 이규태는 일본공사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와 일본군 진압군인 후비보병 제19대대 장교들과 협력하지 않아 12월 27일 양호도순무영은 갑자기 폐지되었다.

이규태 관련 문서는 기록물군으로 묶였으며 그것은 다시 시기, 지역, 형태별 등의 하위군으로 나누었다. 1894~1985년 까지 작성된 문서는 ○○○건에 이른다.²⁴⁾

24) 건수는 기록물안에 개별 문서가 포함되어있어 일일이 산출할 수 없으며 서목의 경

② 하위군에 대한 집합적 기술 : 이규태의 관직 생활 중 생산된 관련 문서를 형태, 지역, 시기에 대한 소개. 각 하위군에 대한 집합적 기술

이규태가 생산한 기록물은 주로 2차 봉기 때 작성한 것으로 공적 기록물인 『선봉진일기』, 『순무사정보첩』, 『선봉진각음료발관급감결』, 『선봉진순무사갑오동이후일본사관함등건(先鋒陣巡撫使甲午同以後日本士官函贖件)』, 『선봉진서목』, 『선봉진전령각진』 등이며 그 형태는 서목, 첩보, 전령, 감결, 관문 등이다. 사적 성격을 띤 기록물은 『이규태왕부서병묘지명(李圭泰往復書竝墓誌銘)』으로 편지, 통문, 묘지명 등이 실려 있다. 관련 기록물은 『갑오군정실기』, 『공산초비기』 등이다. 전라도, 충청도 등지의 진압자료이며 편지 역시 진압과 관련된 것이다.

서목은 ○○○건이며 전령은 ○○○건이다. 기타 감결○○건, 편지○○ 등이다.

③ 시리즈 대한 집합적 기술 : 형태별, 지역별, 시기별 시리즈의 성격 기술, 시리즈 내 자료 개관 (시리즈 폴더 및 아이тем)

공적 관련 기록물에 속하는 시리즈는 전령, 감결, 서목 등이며 사적 관련 기록물은 편지, 묘지명, 호적 등이다. 그 가운데 서목은 원래 첩정에 첨부하는 문서로 결재자가 첩정의 내용을 열른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한 것으로 주로 보고할 내용이 간단할 경우 서목만 작성하였다. 『선봉진서목』에는 이규태가 동학농민군 토벌에 관한 전략과 군량, 군기에 대한 조처를 양호도순무영과 친군경리청(親軍經理廳), 친군총어영(親軍總御營), 군부아문 등에 보고한 내용들이 있다. 전령은 상급관원이 하급관원이나 백성에게 발급한 문서로 어떤 직책에 임명하거나 혹은 명령을 내릴 때 사용하였는데 『선봉진전령』에는 장위영 좌선봉장 이규태가 장위영·통위영·경리청 등의 부대와 휘하 각 영관·대관·별무사 등과 각지의 수령과 의병소

우 110여 건, 전령의 경우 100여 건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숫자는 명기할 수 없다. 이하 ○○도 마찬가지다.

와 수성군 등에게 내린 것들이다. 감결도 같은 성격으로 물자의 염출, 인마의 동원과 경비, 농민군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지시 등의 내용들이다. 사적 기록물은 주로 편지로 수신자에 대한 안부, 전투 소식 등이다.

예)

1894년 10월 11일 선봉장 이규태가 양호도순문영으로 올린 서목

1894년 11월 2일 선봉장 이규태가 공주 삼거리면 입석동 두민 등에게 보내는 전령

1894년 10월 21일 선봉장 이규태가 천안군에 발송한 감결

1894년 12월 4일 생질 조병완이 이규태에게 보낸 안부 편지

또한 세부적 기술을 위해 다음 사항들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수집/소장처가 일관되게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으로 기재되어 있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의 상태와 연구자들을 위해 원본 소장처 곧 공적기관 소장기록물의 개인소장가에 대한 정보서비스도 필요하다. 둘째, 지역사료의 경우 각 도만 표기되어 있다. 각 지역의 사건과 시각을 기록물을 통해 이해하기위해 구체적인 시·군별 기재가 필요하다. 셋째, 기록물의 대상시기와 간행시기를 구분하여 기록물 평가에 대한 기초적 자료로 삼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생산자와 기록주체에 대한 명확한 구분도 필요하다. 『공산초비기』의 경우 생산자 곧 간행자는 미상이지만 구완희의 공주지역 토벌기록으로 생산주체는 구완희로 보인다. 효유문의 경우 전라감사 김학진의 효문이지만 종사관 김성규가 모은 것으로 서명에 구체적인 기록주체를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생산자와 기록주체를 명확히 구분해야 이용자의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구체적인 생산자 정보,²⁵⁾ 관련자료명도 함께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외 수량, 재질, 크기, 문서의 서체, 보존상태

25) 출신지, 생몰연대, 관력

등의 외형적 자료의 특징도 명시함으로써 기록의 외적 가치 판단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표 5〉 상세 기술 예시

서명	공산초비기 (公山剿匪記)	난파유고 (蘭坡遺稿)	함평갈동명록 (咸平葛洞名錄)
생산자/기록주체	미상/구완희	정석진/	농민군
대상시기/생산년도	1894.10/1894	1895/1913	1894
지역	충청도 - 공주	전라도 - 나주 장흥	전라도 - 함평
서지	필사본	인쇄본	필사본
형태	도서 - 지형도	도서 - 행장, 유생의 글	문서
성격	조선정부	유생 - 민보군	농민군
소장처	규장각	동학기념관	동학기념관
설명	장위영참모관 구완희의 토벌기록 - 이인, 효포, 우금치전투	나주성수성도통장 정석진의 문집중 일부	함평갈동의 농민군 명단
관련사항	이규태,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민종렬, 『금성정의록』	

또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작업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기록물 형태는 거의 모두가 도서로 획일화 되어있다. 문서철로 엮여 있어 도서로 규정하고 있지만 상세 내역이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어 이규태왕복서묘지명, 홍성금석문, 나주명록, 동학관련판결서, 곡성군수보장 등속의 각종 상서, 소지, 편지, 전령, 완문 등은 개별적인 문서로 처리한 후 그에 따른 관련문서들과의 연결을 통해 중복되거나 놓치지 않게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1894년 동학관련 기록만 발췌한 기록물에 대해 기록물전체(원본)를 링크하여 연구자들의 이해를 돕는 작업이다. 이러한 작업들은 정보를 지적으로 통제하고 구조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록관리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5. 맺음말

본고에서는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현황을 검토하여 그 가치를 살펴보고 기록학적 관점에서 수집과 분류, 정리와 기술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이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71건의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은 대부분 1차 자료이며 원본으로 사료적 가치가 크다. 출처별로는 정부와 일본 측 자료 그리고 민간인이지만 유생 측의 자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나타난다. 이는 당시 농민군의 입장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과 기록물조차 보존할 수 없었던 처지를 말해주고 있다. 형태별로는 도서가 주를 이루며 이는 지역 유생의 자료는 대부분 일기 형식의 문헌으로 생산했기 때문이며 공문서의 경우 각각의 문건을 철로 묶었기 때문이다. 문서의 경우 사발통문이나 농민군 명단 등은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 기록내용의 시기별로는 9월 재봉기의 기록물이 대부분이다. 이는 전국적인 반일운동이었고 정부군과 일본군이 연합하여 이를 진압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많은 기록물을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은 한국사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사 나아가 세계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은 조선의 봉건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세계사적 보편 가치인 인간 존중과 평등의 이념을 추구하였다. 또한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에 저항하며 국가적인 자주성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사건의 전개과정을 담고 있는 기록물은 저항과 투쟁을 넘어선 인간존중과 화합을 보여주는 기록물이다. 또한 일본군이 한반도에서 우월권을 확보하고 동아시아의 패권을 잡게 되는 출발점이 된 사건으로써 이 때 생산된 기록물은 동아시아적 의미를 지닌 기록유산이다. 또한 다양한 출처와 형태의 기록물로 진본성·희귀성·완전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가치가 크다.

셋째,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기록학적 연구의 필요성이다. 본론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한계는 271건의 기록물에 대한 문서 건수별 분석을 하지 못한 점이다. 또한 기록의 분류와 정리에 대한 시론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에 대한 수집은 물론이려니와 분류와 정리,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아직 발굴하지 못한 기록물에 대해 학술기관이나 연구소 중심의 보다 체계적인 수집방안이 절실하다. 또한 기록학적 방법론을 적용한 정리와 기술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효숙. 2011. 동학농민군 탄압 인물과 그 행적-미나마미 코시로, 이두황, 조희연, 이도재를 중심으로. 『동학연구』, 22, 129-162.
- 국사편찬위원회. 1959. 『동학란기록』, 상·하. 서울: 역사문제연구소.
- 김용섭. 1958. 전봉준 공초의 분석: 동학난의 성격 일반. 『사학연구』, 2, 1-49.
-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사연구회. 2014. 청일전쟁·동학농민혁명과 21세기 동아시아 미래 전망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사연구회.
- 동학농민전쟁백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1996. 『동학농민전쟁 사료총서』 1-30권, 서울: 사운연구소.
- 동학농민혁명기록물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2016.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서. 정읍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07.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1, 2권. 서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08.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3, 4권. 서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09.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5, 6권. 서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10.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7, 8권. 서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11.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9, 10권. 서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13.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11권. 서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14.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12, 13권. 서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미나미고시로. 2015. 「미나미고시로문서」. 『동학농민혁명신국역총서』 5권. 정읍: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박맹수. 2015. 「미나미고시로 문서 해제」.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5권.
- 박맹수. 2014. 지리산권 동학농민혁명의 실상과 동아시아적 의미. 『남도역사연구』, 26, 9-35.
- 박맹수. 2009. 『사료로 보는 동학과 동학농민혁명』. 서울: 모시는 사람들.
- 박맹수. 2009. 전라도 유교 지식인의 동학농민군 인식과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 51, 108-138.
- 박학래. 2015. 「학초전」. 『동학농민혁명신국역총서』 2권. 정읍: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배항섭. 1994. 충청지역 동학농민군의 동향과 동학교단: 홍양기사와 금번집략을 중심으로. 『백제문화』, 23, 87-105.
- 신영우. 1994a. '동학농민전쟁' 연구와 일기자료. 『역사와 현실』, 12, 283-308.
- 신영우. 1994b. 자료소개 '동학농민전쟁' 연구와 일기자료. 『역사와 현실』, 12, 283-30.
- 역사문제연구소·동학농민전쟁백주년기념사업회. 1996.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30권. 서울: 사문연구소.
- 이이화. 1989. 오지영 「동학사」의 내용검토: 주로 1894년 동학농민전쟁과 관련하여. 『민족문화』, 12, 143-167.
- 이진영. 1993. 동학농민전쟁기 호남지역 태인 고현내면의 반농민군 구성과 활동: 김기술과 도강김씨를 중심으로. 『전라문화논총』, 6, 39-77.
- 조경구. 2003. 고문서 정리(整理)에 대한 기록학적 연구: 새로운 고문서 정리 방법의 모색을 위하여. 『기록학연구』, 7, 37-74.
- 조시영 외. 2014. 「소모사실 외」. 『동학농민혁명신국역총서』 2권. 정읍: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채미하. 2004. 『일본 근대 역사기록물의 분류와 기술』. 서울: 한국국가기록연구원.
- 황현. 『오하기문』. (김중익 역. 1995. 『오하기문』. 서울: 역시비평가).
- 최병현 외. 2014. 「종리 원사 부 동학사 외」. 『동학농민혁명신국역총서』 1권. 정읍: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Miller, Fredric. 1990. 『Arranging and Describing Archives and Manuscripts』, S.A.A. (조경구 역. 2002.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정리와 기술』. 서울: 진리탐구).

[참고 사이트]

동학농민혁명종합시스템홈페이지 <<http://www.e-donghak.go.kr>>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DB <<http://db.history.go.kr>>

〈부록〉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목록*

	서명	생산자 / 기록주체	대상시기 / 생산시기	관련지역	소장처	본	형태	성격	비고
1	各府報告書	법부	1895.7~9.	전국	규장각	필사본	도서	관	法部에 올린 報告書 13건과 實稟書 5건 등 18건의 文件을 모아서 묶은 문서철
2	各電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1894	전국	규장각	필사본	도서	관	각 지방 및 東京, 天津 등 해외 공사관에 보낸 전보
3	各陣將卒成冊	미상	1894.1		고려대	필사본	도서	관-일반	신봉진에하 토벌총사자 명록
4	甲午軍功錄	군부	1894		규장각	필사본	도서	관-일반	신봉진에하 토벌지411명수록-신 청회, 장교, 보부상등
5	甲午軍政實記	양호도순무영/신정희	1894.9.22~12.27	전, 충	연세대	필사본	도서	관-2차	진안기구 구성, 조직과 활동
6	甲午記事	최덕기	1894.03~12	충-서천	도총사	필사본	도서	유생-견	향교일원
7	甲午勳亂錄	이철영	1894	충-공주	개-이충선	인쇄본	도서	유생-견	부분
8	甲午東學亂	권병덕	1893~1895	충, 경기, 황	?	인쇄본	도서	능	청주첨주, 보은집회, 등민군활동, 회상기록
9	甲午略歷	정석모	1894	전-전주	기념관	필사본	도서		홍선대원군 효유문전달
10	甲午事記	조의근	1894	전-고창	기념관	필사본	도서	유생-견	보수장장
11	甲午實記	미상	1894.3~12.	전국	규장각	필사본	도서	관	중앙으로의 보고와 대책, 보고사, 상소문 등
12	甲午十月日經理廳	조선정부	1894		고려대	필사본	도서	관	천군 경리청 출진 장출 명단
13	甲午十月日矯導所出駐將兵成冊	조선정부	1894.10		고려대	필사본	도서	관	토벌에 참여한 교도소 장병의 성명과 직위를 기록 10
14	甲午十月日先鋒陣出征將卒姓名及其服馬實數成冊	조선정부	1894.10		고려대	필사본	도서	관	토벌에 참여한 先鋒陣 장병의 성명과 물자기록 10
15	甲午十月日親軍經理廳將卒成冊	조선정부	1894.10		고려대	필사본	도서	관	천군 경리청 출진 장출 명단 10
16	甲午十二月民狀冊	조선정부	1894~5		고려대	필사본	도서	관	관내 백성들이 올린 장계와 그 처리결과
17	甲午日記	이면재	1894.3~1894.7	충-청풍	개-이규영	필사본	도서	유생-견	성두환기록
18	甲午斥邪錄	반재원	1893~1894	경-예천	기념관	인쇄본	도서	유생-견	보수집강소
19	甲午海營匪攔頭末	정현석	1894.09	황	개-정운철	필사본	도서	관리	황해감사 장계, 품장등제-9월이후 활동상
20	剛肅遺稿	박기현	1894/1988	전-강진	?	인쇄본	도서	유생-견	민보군회생자제문 등
21	開城裁判所刑名簿	개성재판부	1896		규장각	필사본	도서	관	죄수들의 인적사항을 정리한 문서철
22	學義錄	홍덕현/박운화, 강영중 등	1894	전-홍덕	규장각	필사본	도서	유생-민	수성군활동
23	去電	외무아문	1894.8.~1895.3.22		규장각	필사본	도서	관	양정부에서 지방 및 해외공관으로 보낸 전보의 내용
24	檢事職制	법무아문	1895.4.15		규장각	필사본	도서	관	검사직제 규정

25	謙山遺稿	이병수	1893~1896 /1946	전-장흥	기념관	인쇄본	도서	유생-민	나주교위, 영인
26	京各營供給記	조선정부	1894.10		고려대	필사본	도서	관	토벌 참여 각부에 검급한 물자 수록
27	經亂錄	이병석	1860~1919	충-아산	연세대	필사본	도서	유생-견	부분, 아산
28	慶尙道召募黨錢穀入下實 數成冊	정의목	1895.12	경	규장각	필사본	도서	유생-소	토벌대동원 및 활동자금-민간에게 엄출하고 소용처기록
29	慶州版 東經大全의 4건	천도교	1883		천도교 중앙총부	인쇄본	도서	교단	
30	啓草存案	의정부기록국	1894.07.21~189 4.11.20	전국	규장각	필사본	도서	관	농민군활동
31	高山坊 鳳憲 牒呈	고산방풍헌	1894.4.19	평-강계	기념관	필사본	도서	관	첩정
32	固城府叢瑣錄	오형목	1893~1894	경-고성	장서각	필사본	도서	관-리-견	고성부사, 일기
33	高興郡教區歷史	장창도	1917	전-고흥	천도교중앙 총부	필사본	도서	교단	
34	谷城郡守報狀	곡성군수	1894~1895	전-곡성	개-정봉태	필사본	도서	관	소모소, 백성 침탈관련
35	公文日錄	동래부	1894	경-동래	규장각	필사본	도서	관	1857~1895 동래부와 각 관청 수발신 공문서
36	公山剿匪記	미상/구원희	1894	충-공주	규장각	필사본	도서	관-토	장위영창모관 구원희, 지형도 첨부
37	公移公復綴	범우아문	1894~5		규장각	필사본	도서	관	의정부, 외무아문, 군무아문과의 수발신문서
38	關甘灘簿冊	조선정부	1894.1~6		고려대	필사본	도서	관	세금에 대한 장부
39	官旨冊	임심현	1895	전-임실	고려대	필사본	도서	관	세금관계
40	光陽畿洞靑浦徒東徒姓名 成冊	통리아문	1894/1894.12	전-광양	규장각	필사본	도서	관	농민군명단
41	光陽縣捕徒東徒姓名成冊	통리아문	1894/1894.12	전-광양	규장각	필사본	도서	관	농민군명단
42	嶺南隨錄	경상감영	1894.8.28~12.24	경-상주	규장각	필사본	도서	관	소모경비내역
43	均菴丈林東豪氏路歷	임동호	1908년 이후	경기-여주	개	필사본	도서	농	구술- 경기, 충청, 농민군실체
44	錦藩集略	이현영	1894.04.25~189 4.8.29	충	중앙도서관	필사본	도서	관리	충청감사
45	錦山義兵殉義碑	미상/금산군	1894.1	충-금산	금산군청	금석문	도서	관-일반	수성군행적
46	錦鎗來札	김홍집, 김윤식	1894.8~1894.12	전국	고려대	필사본	도서	관-리-사 신	충청감영감사와 개화정부총리대신- 私信형식-대책상의
47	記開錄	미상	1894.6.7~1894.1 2.24	경, 충	고려대	필사본	도서	유생-견	농민군활동
48	金箕述文書	김기술	1894.03, 1894.4.4.	전-태인	개-김석	필사본	도서	유생-민	
49	金洛風履歷	김낙봉	1890~1898/1937	전-부안	개-김문철	필사본	도서	유생-농	체첵록, 국한문혼용
50	金洛誌歷史	김낙철	1890~1917(1894 .09)	전-부안	개-의손녀	필사본	도서	유생-농	대접주
51	金相撤履歷行狀	김상철	1892~1895	전-완도	기념관	필사본	도서	유생-견	부분(영인), 반농민군활동
52	金若濟日記	김약제	1894		국사편찬위 원회	필사본	도서	유생-견	조선사편수회에서1 929년 필사
53	羅州名錄	농민군	1894	전-나주	기념관	필사본	도서	농-일반	농민군명단
54	南小四郎文圖書	미-이 고시로	1894.11~1895.8	전국	山口縣立文 書館	필사본	도서	일본군	일본정부, 군부개입
55	南遊雜錄	이복영	1893~1895	충-부여	연세대	필사본	도서	유생-견	부분

56	南征日記	이중하	1894.5~6.27.	충-아산	규장각	필사본	도서	관리	영접관일기, 청병경로
57	남정록	미상/백낙완	1894.9.~1896.7	충	개-백일현	필사본	도서	관-2차	친관경리청부관영장 백낙완속근기록-순 한글판
58	路程略記	김형진	1895~1896	민주	백범기념관	필사본	도서	농	이후 행적
59	農山集	장승택	1894/1931	경-철곡	중앙도서관	인쇄본	도서	유생	민보군독려-「斥東匪文」, 적사파
60	籬園文錄	정인보권	19말~20초	전-구례	개인(후손)	필사본	도서	유생-견	이기묘지명-영인
61	大先生事蹟	미상	1906		천도교중앙총부	필사본	도서	교단	(1827~1898)
62	大先生主義集	임종필	1900		규장각	필사본	도서	교단	
63	大韓季年史	정교	1893~1894			필사본	도서	관-견	1864~1910 보은집회, 9월이후 진압과정
64	道人經過來歷 等文件	해남현	1894	전-해남	기념관	필사본	도서	관-이방	농민군행차경비 연출내역, 통문 및 완문
65	東徒問辨	최영년	1894	전	장서각	필사본	도서	관-1차	문답식, 김문현 羅司馬
66	東道倡義所 告示	농민군	1894.11		국사편찬위원회	필사본 (사진 도판)	문서	농	동학농민군 지도부에서 작성하여 배포한 고시문
67	東匪討錄	의정부	1894.4.5	전. 충	개-이강웅	필사본	도서	관	전라도 각관아
68	東匪討論	미상	1894.9~1895.3	강	개-이강웅	필사본	도서	유생-견	농민군과 민보군전투
69	東擾日記	도한기	1894.08.23~1894.9.3	경-성주	기념관	필사본	도서	관-아전-견	농민군양상
70	형사재판원본(1895)	법부	1895		국가기록원	필사본	도서	농-재판	관련자 171건
71	東學黨征討略記	스즈키 소위, 나카야마 중위	1894	황-해주	규장각	필사본	도서	일본군	해주감영 전투 참여
72	東學黨征討略記	鈴木	1894.1	황-해주	규장각	필사본	도서	일본군	해주감영 전투기록, 답화체
73	東學黨征討人錄	군부	1894~5/1895.6 이후		규장각, 고려대	필사본	도서	관-일반	도발자 766명 명록
74	東學道宗釋史	강필도	19말~20초	황	?	필사본	도서	교단	순천민관련기록, 시천교종역사인용
75	東學文書	Mutel	1893~1894		韓國教會史研究所	필사본	도서	천주교	동학관련사료
76	東學史(草稿本)	오지영	1860~1930/1926 (동학부분)	전		필사본	도서	농	고부민란, 교단역사
77	羅巖遺錄	박주대	1893~1894	경-예천	기념관	필사본	도서	유생-견	부분, 동학요구내용
78	蘭坡遺稿	정석진	1895/1913	전-나주, 장흥	기념관	인쇄본	도서	유생-민	부분, 나주성수성도통장
79	來電	외무아문	1894~5		규장각	필사본	도서	관	지방 및 해외 공관에서 중앙 정부에 보낸 전보의 내용
80	兩湖電記	홍계춘	1894.4.3~1894.5.28	전	국립중앙도서관	필사본	도서	관-1차	전보
81	兩湖巡遊雜錄	홍계춘	1894.4.3~1894.5.16	전	규장각	필사본	도서	관-1차	일기체, 이문, 김결, 전경, 방문 등
82	蓮坡集	김명휘	1894.12/1913	전-강진	연세대	인쇄본	도서	유생-민	송병준문하
83	嶺上日記	김재홍	1892.10.7~1895.1.30	전-남원	국사편찬위원회	필사본	도서	유생-견	경험, 전문남자별 기록

84	柳下集	이치우	1894	경-의흥	중앙도서관	인쇄본	도서	유생	의흥군수에게 보낸 편지, 『與義興侯奏侯』, 대체, 의흥인보군록
85	六有齋遺稿	백영직	1894	전-장흥	개-백일신	인쇄본	도서	유생-건	장흥, 전투사실, 박원양행적
86	李圭泰往復書並墓誌銘	이승욱 등	1894.10.11		고려대	필사본	도서	관리	묘비명, 개인사기록 지휘관, 친지의 私信
87	李秉輝供草	법부	1894		서울대	필사본	도서	농-재판	흥선대원군임서 전달
88	李埈鎬供草	법부	1894		규장각	필사본	도서	농-재판	갑오개혁시 모반사건
89	臨瀛討匪小錄	이희원	1894	강	선교장	필사본	도서	관리-토	강원부사, 토벌지휘
90	林下遺稿	김방선	1894	전-고부	기념관	필사본	도서	유생-건	우도포란
91	梅泉集	황현	1894~1894	전	개	필사본	도서	유생-건	부분
92	勉菴集	최익현	1894. 04.23	전-장성	기념관	인쇄본	도서	유생-건	부분, 이학순의미-금석 문
93	洞擘行遺日記	김윤식	1893~1894	충-면천	기념관	필사본	도서	유생-건	『속음청사』, 부분
94	名錄	농민군	1894.9		기념관	필사본	문서	농	동학농민군 관련 명단
95	慕忠祠戰亡將卒氏名錄	모충사	1894/	충-청주	모충사	필사본	도서	유생	공주 대전평 전투기념. 청주
96	茂長布告文	농민군	1894	전-무장	친도교중앙 총부	필사본	문서	농	무장동학포고문
97	文章峻 歷史	문장준	1895~1897	충-태안	개	필사본	도서	유생-농	접주, 전투참여, 도피생활
98	勿禁帖記	조선정부	1894		고려대	필사본	도서	관	집압과정에서 침범하지 않아야 사람들 명단
99	勿復帖	조선정부	1894.12		기념관	필사본	문서	관	동학미가담자 17명 인식사항
100	民狀抄彙冊	보성군	1894	전-보성	고려대	필사본	도서	관	백성들이 올린 장계와 그 처리결과
101	朴鳳臨經歷書	박봉양	1894.8	전-문봉	개-박병래	필사본	도서	유생-민	
102	防守將 書目	방수장	1895.1.3	경-하동	기념관	필사본	문서	관	적량면 방수장이 수성관에게 발송한 서목
103	柏谷誌	한약우	1894	경-진주	개-한주	필사본	도서	유생-건	마을중심대처기록, 동약, 진주전투과정기술 편지
104	白石書牘	이용목	1893~1894	충-보은	규장각	필사본	도서	유생-건	
105	法部來去文	외부	1895~1896		규장각	필사본	도서	관	外部에서 외국인의 형사-민사 관계의 법률적용에 대해 법부에 문의내용
106	法部來文	법부	1894~1902		규장각	필사본	도서	관	法部에서 자체내의 인사-봉급-후생 등과 기타 법률 문제에 대해 내각에 문의한 문건을 모은 자료
107	法部請議書	내각편록과	1895.4~1896.9		규장각	필사본	도서	관	법부에서 각의에 제출한 청의서를 모은 자료
108	保放條例照會通牒式	법부	1895		규장각	필사본	도서	관	정부기관 문서양식 설명
109	復菴私集	이설	1894	충-홍성	중앙도서관	필사본	도서	유생-건	부분

110	復齋集	위계민	1894.12	전-장흥	개-위중문	인쇄본	도서	유생-견	신모기록
111	本校歷史	오상준	1910~1914		천도교중앙총부	인쇄본	도서	교단	1892~3년 교초신원운동중심
112	本陣別庫官差出記	조선정부	1894.10		고려대	필사본	도서	관	토벌에 참여한 별군관 차출 내용
113	鳳南日記	변만기	1894.10~1895.2	전-장성	개-번시언	필사본	도서	유생-견	나주, 고창 등지 목격담
114	沙鉢通文	농민군	1893	전	기념관	필사본	문서	농	동학농민군이 남긴 최고의 자료
115	思復齋集	송중연/송진봉	1894.12~1898	전-강진	?	인쇄본	도서	유생-견	부분, 「宗人鍾淋甲午事狀」
116	沙亭日記	김영식	1884~1924	충	개-김용준	필사본	도서	유생-견	척사파, 청일전쟁실상
117	私通	도통장	1894		기념관	필사본	문서	유생	동학도 체포과정 보고 문본
118	上書	구본협 등	1894.12	전-화순	기념관	필사본	문서	유생	구본협 등이 초토사 민총렬에게 올린 상서
119	瑞山이변면看月島儒會成冊	간월도유회군	1894	충-서산	고려대	필사본	도서	유생	간월도의 유회 참여 명단
120	瑞山永豐倉面牛吉里儒會姓名成冊	우길리유회군	1894	충-서산	고려대	필사본	도서	유생	영풍창면 우길리의 유회 참여 명단
121	石南歷事	박문규	?	전-고부	개-박남준	필사본	도서	유생-견	전봉준관련사실
122	先鋒陣各邑了發關及甘結	이규태	1894.12.12~1895.2.4	전, 충	고려대	필사본	문서	관-2차	감찰, 전령, 방시문 등 수록, 물자인원 관련
123	先鋒陣上巡撫使書附雜記	이규태	1894.10.22~1895.3	충	고려대	필사본	도서	관-2차	신정희에게 보낸 편지, 私信의성격
124	先鋒陣書目	이규태	1894.10.11~1895.3.22	전국	고려대	필사본	문서	관-2차	이규태가 각 관청에 보고한 서목, 일본군동정 상세 기록
125	先鋒陣巡撫使甲午同以後日本士官函牘件	모리오 마사이찌, 미나미 고시로/이규태	1894.11	전국	고려대	필사본	도서	일본군	일본군의 농민군 탄압, 이규태에게 보낸 서신
126	先鋒陣日記	이규태	1894.9.21~1894.12.12	전국	고려대	필사본	도서	관-2차	진종일기, 전령, 첩보 등
127	先鋒陣傳令各鎮	이규태	1894.10~1894.12.26	전-무안	고려대	필사본	도서	관-2차	각진에 내린 전령 및 무안 배상옥토벌사항
128	先鋒陣呈報牒	이규태	1894.10.11~1895.3.22	전, 충	고려대	필사본	문서	관-2차	이규태에게 보낸 첩보, 2차농민혁명1차사료
129	宣諭榜文並東徒上書所志牘書	미상	1894.10~1895.1	전, 충	고려대	필사본	도서	관-2차	관변측 선유문, 농민군측 글, 공초 등, 윤음을 한글로 번역
130	歲藏年錄	최봉길	1893~1895	경-김산	기념관	필사본	도서	유생	부분
131	召募官率砲軍上京時楊根郡三站供饋食床與所入錢實數成冊	양근군	1894	경기-양근	규장각	필사본	도서	유생-소	소모관이 이끄는 포군의 식비 및 기타 경비
132	召募事實	조시영	1894.11.21~1895.1.22	경-김산	개	필사본	도서	유생-소	소모사 후일 경상도관참사가 됨, 각급기관과 주고받은공 문
133	召募事實	정의목	1894~1895	경-상주	개-진양정 씨증가	인쇄본	도서	유생-소	소모영의 편제 등, 공문서
134	召募日記	정의목	1894.10.~1895.1	경-상주	개-정의목 증가	인쇄본	도서	유생-소	소모사일기

135	所志	빅근순 등	1894.12	?	기념관	필사본	문서	유생	박근순 등 10명이 올린 소지
136	松沙集	기우만	1894.12	전-장성	기념관	인쇄본	도서	유생-건	부분 나주도량비문-민중 열, 장흥부사박공재단비 문-박헌영, 금석문
137	陸錄	무주관아	1894.3~1897	전	경도대학합 문고	필사본	도서	관	공문서
138	殉教略歷	최병현	1923	전-남원	개-김동규	필사본	도서	교단	순교자 88명
139	巡撫使各陣傳令	신정희	1894.10~1894.1 2.26	전, 충	고려대	필사본	문서	관-2차	이규태에게 보낸 전령
140	巡撫使呈報牒	이규태	1894.10.11~189 4.12.20	충, 전	고려대	필사본	문서	관-2차	신정희, 첩보
141	巡撫先鋒陣錄	이규태	1894.10.11~1895 .2.5	충, 전	고려대	필사본	도서	관-2차	각지와 주고받은 공문서
142	順天府捕犯東徒姓名成冊	통리아문	1894/1894.12	전-순천	규장각	필사본	도서	관	농민군명단
143	時經錄	미상	1882~1895	경	개-박영순	필사본	도서	유생-건	보은잡화, 농민지도자활동 및 각지기술
144	時間記	이단석	1894	충	중앙도서관	필사본	도서	유생-건	10월 이후 전투 상황 등
145	侍天教宗譯史	박형재	1893~1896/1915	전국	천도교중앙 총부	인쇄본	도서	교단	농민군활동, 교도현황, 일진회관련
146	略史	이용규	1894/1897	충-공주	규장각	필사본	도서	유생-건	집강소활동
147	兩湖右先鋒日記	이두황	1894.09.10~189 5.2.18	경기,충	고려대 등	인쇄본	도서	관리	진종일기
148	廉記	미상	1900.1	전남	규장각	필사본	도서	유생-민	지방접주층의 민간토착기록
149	永懷記	미상	1894/1900	전-장흥	개-문재국	필사본	도서	유생	박헌영, 이방언활동
150	永懷堂史輯	미상	1894/1898	전-장흥	개-김장근	필사본	도서	유생	박헌영 및 공작수성군95인, 수성군포상
151	禮房色來報顯錄	동래부	1894	경-동래	규장각	필사본	도서	관	동래부 소속 예방에서 예전에 관한 관문과 첩보의 내용
152	五南集	김한석	1894	전-강진	개-김태경	인쇄본	도서	유생-민	보안면도통장, 경시적도로
153	吳世鎔副參謀長任命狀	오세용	1894		천도교중앙 총부	필사본	문서	유생-민	오세용을 수성부참모장으로 임명하는 임명장
154	五統節目	전리관찰사	1894	전	기념관	필사본	도서	관	동학농민혁명 가담자 감시 및 색출목적
155	梧下記聞	황현	1864~1907	전	장서각	필사본	도서	유생-건	혁명의 전 과정 기록
156	完文	어삼천면장	1894.12		기념관	필사본	문서	관	이건재가 접주의 가옥, 전토 고을소유
157	完文	나주목	1894.11	전-나주	기념관	필사본	문서	관	
158	外費坊 風憲 稾呈	외귀방풍헌	1895	평-강계	기념관	필사본	문서	관	첩정
159	龍仁縣甲午年滿人日兵各 營兵丁過去時供饋所入錢 及戰亡兵丁撫軍價錢成 冊	용인현	1895	경기-용인	규장각	필사본	도서	관	용인현을 거쳐 간 청과 일본군에 제공한 물자 내역

160	龍仁縣日兵京軍馬兵過去供餉所入錢成冊	용인현	1895	경기-용인	규장각	필사본	도서	관	인현에서 경군과 일본군에 제공한 물자 내역
161	儒會成冊	청면천동유회	1894	?	기념관	필사본	문서	유생	유희에서동학참기자 조서서
162	義山遺稿	문석봉	1894~1895.2	충	중앙도서관	인쇄본	도서	관라-토	2차분기이후의 사실, 문집의 일부
163	李廷敬勿倭帖	남평현	1894.12.29	전-남평	기념관	필사본	문서	관	이정돈의 물침첩
164	李鍾勳略歷	이중훈	1893~1931/		개	필사본	도서	농	일기, 전투참여, 건국훈장대통령장
165	日本公使館通論文	일본공사관	1894		천도교중앙총부	필사본	문서	일본공사관	일본공사관에서 작성하여 조선 각급 기관에 발송한 통유문
166	日本外交文書	일본외무성	1894~1895	전국	일본외무성	인쇄본	도서	일본외무성	
167	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所藏文書(1)	일본외무성	1894~1895	전국	일본외무성	필사본	도서	일본외무성	
168	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所藏文書(2)	일본외무성	1894~1895	전국	일본외무성	필사본	도서	일본외무성	
169	日史	박기현	1893~1895/	전-장흥		필사본	도서	유생-건	부분(1891~1903)
170	狀啓	이문영의	1894	전, 충, 경	?	필사본	문서	관리	전, 충, 경관찰사 등
171	全羅道各邑每四邑作統規模圖新條約別錄成冊	민중렬	1895	전	규장각	필사본	도서	관	2차분기 전라도 초토영의 집합상황
172	全羅道各邑所捉東徒數文及所獲計物并錄成冊	민중렬	1894/1894.12	전	규장각	필사본	도서	관	호남초토사
173	全羅道各邑所捉東徒數文及將領姓名并錄成冊	민중렬	1894/1895.1	전	규장각	필사본	도서	관	농민군영단
174	傳令	조선정부	1894		기념관	필사본	문서	관	접주를 잡아들리라는 전령
175	傳令	순포중군	1894.11.4		기념관	필사본	문서	관	순포중군이 상부에 보낸 전령
176	傳令	순우영	1894.4.4		기념관	필사본	문서	관	불법을 저지르는 동학교도들을 체포령령
177	傳令郡內面衙一通	조선정부	1895		고려대	필사본	도서	관	전령
178	全球準 上書	전봉준	1894		국사편찬위원회	필사본	문서	농	양호 창의영수 전봉준이 양호순상에게 올린 상서
179	全球準 供草	법부	1895	전	규장각	필사본	도서	농-재판	
180	電信存根	외무아문	1894.10~1895.1		규장각	필사본	도서	관	조선정부가 지방에 보낸 전보의 내용
181	電信存根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1894.10~1895.1		규장각	필사본	도서	관	조선정부가 지방에 보낸 전보의 내용
182	全州府報告書	전라도관찰사	1895	전-전주	규장각	필사본	도서	관	이도재가 올린 것으로 농민군의 정매관련
183	全州府前全羅道各邑上納中匪類所奪錢米太區別成冊	전주부	1895	전-전주	규장각	필사본	도서	관	전리도내 각군농민군에게 빼앗긴 내역
184	定配案	법부	1895.3~1896.4	전국	규장각	필사본	도서	관	趙秉甲, 金文鉉, 李容泰, 閔泳毅(閔泳徽), 閔煥植, 閔應植 등이 포함
185	政事	조선정부	1894		규장각	필사본	도서	관	조선정부의 인사 발령 기록

186	鄭雲慶家東學古文書	정운경가	1894	충-영춘	독립기념관	필사본	도서	유생-민	성주환토발
187	丁酉新刊時囚冊	의금부	1894.10~1895.3		규장각	필사본	도서	관	고부군수조병감관련 2월(5건)
188	趙秉甲 簡札	조병갑	1894	전-고부	기념관	필사본	문서	관	
189	宗理院史附東學史	최병현	1924	전-남원	개-김동규	필사본	도서	교단	구술, 남원동학교당 연혁
190	罪人軍物成冊	조선정부	1894.10		고려대	필사본	도서	관	동학농민군 명단과 물자
191	駐韓日本公使館記錄	일본공사관	1894~1910	전국	국사편찬위 원회	필사본 (사진 도판)	도서	일본공 사관	주한일본공사관에서 일본 각급기관과 주고 받은 공문
192	重犯供草	법부	1895~1899	황	규장각	필사본	도서	농-재판	재기도모자 심문기록
193	鎭安縣各樣上納月當錢木 數文納未納成冊	진안현	1894.6	전-진안	고려대	필사본	도서	관	상급기관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납부액과 미납액으로 정리한 자료
194	振威縣去六月朔日本兵陣 下來時所用穀物成冊	진위현	1894	경기-진위	규장각	필사본	도서	관	진위현에 주둔한 일본군이 사용한 물자내역
195	振威縣上下來兵陣供頭部 成冊	진위현	1894	경기-진위	규장각	필사본	도서	관	정부 및 일본군이 진위현을 통과할 때 이들을 대접할 때 경비내역
196	車吳奎 稔呈	차호규	1895.2.9	전-여산	기념관	필사본	문서	관	여산군 목심면에 살던 차호규 등이 관에 발송한 첩정
197	札移電存案	의정부편	1894.8.10~1896. 1.21	전국	규장각	필사본	도서	관	전보
198	蒼溪實記	신석찬	1894.8~12,1895	경-의흥	개-신석순	인쇄본	도서	유생-민	향교와 관아매개, 면단위 민보군조직사항
199	昌山人 曹錫憲歷史	조석헌	1894	충-예산	개	필사본	도서	농	접주, 전투참여, 도피생활
200	倡義人名錄	조선정부	1894		고려대	필사본	도서	유생-일 반	민간에서 동학농민혁명진압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
201	天道教書	천도교	1920		개-박봉관	필사본	도서	교단	경정과 교사
202	天道教任實教史	최동안		전-임실	개	필사본	도서	교단	국한문혼용
203	稔報	법부	1895.8	전국	규장각	필사본	도서	관	각 지방에서 법부로 보내온 첩보
204	稔報(22)	법부	1895.4~1895.5. 말	전국	규장각	필사본	도서	관	전국 각도에서 법부로 보내온 첩보들을 철한 자료
205	崔先生文集道源記書	강시원	1879		천도교중앙 총부	필사본	도서	교단	
206	崔雲龍表	결성현	1894	충-경성	천도교중앙 총부	필사본	문서	관	
207	忠淸道木川縣前召募陣籍 產實數成冊	충청감영	1895	충-목천	규장각	필사본	도서	관	충청도관찰사가목천 소모전에서 보내온 물수내역을 내무아문예 보고
208	聚語	보은관아	1893~1895	전	규장각	필사본	도서	관-1차	보은집회 탐지 내용, 1차봉기 전개과정
209	聚義錄	흥덕현	1894	전-흥덕	서울대	필사본	도서	유생-민	수성군명단

210	親軍壯衛營將卒實數成冊	조선정부	1894		고려대	필사본	도서	관	동학농민군 진압에 참여한 친군영 장출 명단
211	親軍統衛營甲午十月日出駐將卒成冊	조선정부	1894.10		고려대	필사본	도서	관	친군 통위영 출진 장출 명단
212	討匪大略	김석중	1893.4, 1894.4~12	경-상주	중앙도서관	인쇄본	도서	유생-민	진중일기
213	通諭東學徒文	이승희	1893.2	충		필사본	문서	유생-건	보은집회시선무사어윤중대신작성한효유문, 『한계유고』 6 (부분)
214	通諭文	오준상 등	1894	전-화산	기념관	필사본	문서	유생	항의장으로 있던 오준상 등이 작성한 효유문을 필사한 문서
215	表	전라관찰사	1894.12	전	기념관	필사본	문서	관	전라관찰사가 한학모에게 작성해 준 표
216	遊亂錄	대교김씨거	1894.7~1895.3	충	천도교중앙총부	필사본	도서	유생-건	피난, 충청서북부
217	鶴蕉傳	박학래	1894~1895/1923	경-예천	개-박종두	필사본	도서	농	예천직곡점주, 자서전
218	韓達文獄中書信	한달문	1894.12	전-나주	개-한관용	필사본	문서	농	한치화로 추정, 편지
219	漢城裁判所移凶錄	한성재판소	1895.5		규장각	필사본	도서	관	한성재판소에서 각 기관이나 각군에서 죄수들을 이관 상황
220	漢城裁判所刑名簿	한성재판소	1896.7~1907.12		규장각	필사본	도서	관	죄수들의 형명부
221	咸平墓洞名錄	농민군	1894	전-함평	기념관	필사본	문서	농	함평감동의 동학농민군 명단
222	鄉約案	미상	1894		기념관	필사본	문서	유생	향약안, 농민군 진압 내용
223	鄉約章程	전라관찰사	1894	전	기념관	필사본	도서	관	동학농민혁명으로 흥흥해진 민심안정
224	鄉約章程	미상	1894	전-전주	기념관	필사본	도서	유생	완산초안국에서간행, 동학농민군의 체포와 처벌 등
225	향약절목	제천현	1894	충-제천	규장각	필사본	도서	유생	동학봉기에 대비한 향약
226	刑事裁判原本 1896	고등재판소	1896		국가기록원	필사본	도서	관	동학농민군 39명에 대한 재판판결문
227	刑事裁判原本 1897	고등재판소	1897~1898		국가기록원	필사본	도서	관	동학농민군 31명에 대한 재판판결문
228	刑事裁判原本1898~1899	고등재판소	1899		국가기록원	필사본	도서	관	동학농민군 10명에 대한 재판판결문
229	刑事裁判原本1900	평리원	1900		국가기록원	필사본	도서	관	동학농민군 79명에 대한 재판판결문
230	湖南招討營參謀官別軍官薦報姓名成冊	호남초토영	1895	전	규장각	필사본	도서	관	호남초토영의 참모관과 별군관을 추천 보고
231	壺山集	박문호	1894~1898	전-광양	기념관?	인쇄본	도서	유생-건	문집의 일부분, 처사피의 시국관
232	湖南招討營各邑節義烈行人姓名成冊	호연초토영	1895	충	규장각	필사본	도서	관	유생, 이서, 교생 등 추모(영인)
233	洪啓薰 密符論書	고종	1894.4.2		기념관	필사본	문서	관	홍계훈에게 내려준 일부유서
234	洪城金石文	미상	1894/1895, 1895	충-홍성	개-이도형	금석문	문서		홍성목사비, 감범돈비, 칠의비

235	洪陽紀事	홍건	1894.4~1894.12.29	충-홍주	국사편찬위원회	필사본	도서	유생-민	홍주목사 이승우 친구
236	洪結銓勿倣帖	나주목	1894.11	전	기념관	필사본	문서	관	나주목에서 홍우전에게 발급해준 물침첩
237	黃海道東學黨征討略記	鈴木彰	1894	황-해주	규장각	필사본	도서	일본군	각지 농민군활동 보고, 일기, 단자, 통문
238	曉諭文	김학규/김학진	1894	전-전주	?	필사본	문서	관	「초정집」 부분, 전라감사김학진의 효유문, 영인
239	興宣大院君 曉諭文	조선정부	1894.9		기념관	필사본	문서	관	
240	宋大和 任命狀	최시형	1894		기념관	필사본	문서	교단	
242	千貴壽 任命狀	최시형	1894		기념관	필사본	문서	교단	
243	金昌模 任命狀	최시형	1894		기념관	필사본	문서	교단	
244	朴炳振 任命狀	최시형	1894		기념관	필사본	문서	교단	
245	朴順道 任命狀	최시형	1894		기념관	필사본	문서	교단	
246	千鎔權 任命狀	최시형	1894		기념관	필사본	문서	교단	
247	全成實 任命狀	최시형	1894		기념관	필사본	문서	교단	
248	嚴次生 任命狀	최시형	1894		기념관	필사본	문서	교단	
249	黃錫八 任命狀	최시형	1894		기념관	필사본	문서	교단	
250	金浚燮 任命狀	최시형	1894		기념관	필사본	문서	교단	
251	二六新報	이력신보사	1894~1895			인쇄본	신문	일본	
252	時事新報	시사신보사	1894~1895			인쇄본	신문	일본	
253	東京朝日新聞	동경조일신문사	1894~1895			인쇄본	신문	일본	
254	萬朝報	만조보사	1894~1895			인쇄본	신문	일본	
255	國民新聞	국민신문사	1894~1895			인쇄본	신문	일본	
256	東京日日新聞	동경일일신문사	1894~1895			인쇄본	신문	일본	
257	大阪朝日新聞	대판조일신문사	1894~1895			인쇄본	신문	일본	
258	洪嘯遺稿	武田範之	1896			필사본	문서	일본	
259	東亞先覺志士記傳	黑龍會	1892/1933			인쇄본	도서	일본	
260	天佑俠	吉倉汪聖	1894/1903			인쇄본	도서	일본	
261	玄洋社社史	玄洋社社史編纂會	1893/1917			인쇄본	도서	일본	
262	秘書類纂朝鮮交涉資料	伊藤博文 編				인쇄본	도서	일본	
263	東學黨	이상	1894			인쇄본	도서	일본	
264	東學黨觀察日記	海浦篤彌	1894			인쇄본	잡지	일본	
265	甲午朝鮮內亂始末	函南逸人 編	1893			인쇄본	잡지	일본	
266	內亂實記朝鮮事件	岡田庄兵衛 編	1894			인쇄본	잡지	일본	
267	朝鮮暴動實記	高橋友太郎 編	1894			인쇄본	잡지	일본	
268	日清文戰錄	이상	1894			인쇄본	잡지	일본	
269	日清戰爭實記	이상	1894			인쇄본	잡지	일본	
270	日清戰役間ニ於ケル帝國駐劄部隊	金正明 編	1893			인쇄본	도서	일본	일한외교자료집성 별책 수록
271	京城府史	京城府	1893/1934			인쇄본	도서	일본	

※ 『사료총서』와 『신국역총서』, D/B, 그리고 기념재단과 기념관의 기록물 목록을 종합하여 기록물명 순으로 작성하였다. 생산처, 관련지역, 생산시기와 대상시기를 구분하고 원본 소장처, 기록물의 형태와 성격을 분류하여 각 기록물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6.9 기준)

※ 각 란의 약칭은 다음과 같다. 소장처 란의 규장각=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서울대=서울대도서관, 고려대=고려대도서관, 연세대=학술정보원, 중앙대=중앙대도서관, 기념관=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을 말한다. 지역란은 전=전라도, 충=충청도, 성격란의 관=조선정부, 농=농민군, 민=민보군, 소=소모사 견=견문록, 1차=1차봉기 진압자료, 2차=2차봉기 진압자료, 교단=1905년 이전은 동학교단 이후는 천도교교단이다.